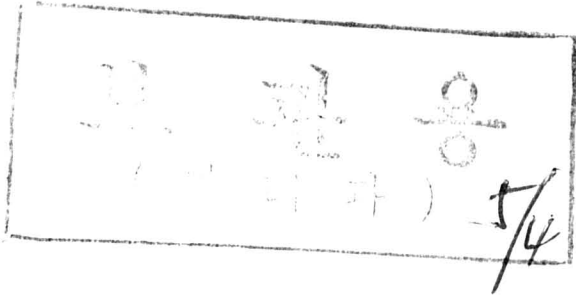


국통 74-1-86

# 强大國의 韓半島政策과 南北韓 關係의 展望



1974. 11.

國 土 統 一 院

이 報告書를 國土統一院 74年度  
研究用役의 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4. 11.



研究責任者：池 珠 善

國際問題研究所  
研究委員

## 目 次

1. 序 言	3
2. 強大國의 極東政策	6
가. 四大強國의 極東政策基調	6
나. 四大強國 極東政策의 變化推移	9
다. 今後 展開 樣相	13
3. 強大國의 極東政策內에서의 韓半島의 位置	17
가. 韓半島의 戰略的 價値	17
나. 韓半島에 對한 強大國의 既存政策	18
다. 韓半島政策 變化推移	22
라. 展 望	26
4. 南北韓關係의 向方	27
가. 內部的 要因에 依한 考察	29
나. 外部的 要因에 依한 考察	31
다. 豫想되는 南北韓 關係	33
5. 結 論	38
〈附 錄〉	
가. 「맨스필드」美國 上院院內總務의 韓半島 中立化 構想 內容	39
나. 第 29 次 UN 總會 基調演說에서 木村 日本外相의 對韓關係 發言 및 記者會見 內容	40

다. 第 29 次 U N 總會 基調演說에서 喬冠華 中共 代表團長의 對韓關係 發言 內容 .....	41
라. 第 29 次 U N 總會 基調演說에서 「그로미코」 蘇聯外相의 對韓關係 演說 內容 .....	43
마. 木村 日本外相의 對韓關係 發言錄 .....	44

## 1. 序 論

2次大戦後 国際秩序의 主流를 이루어온 美国과 韓聯을 頂点으로 한 兩大 「블록」間의 冷戰形態는 70年代에 들어서면서, 이 兩超強国 美·蘇間의 核力均衡化, 中共의 急速한 核力 伸張과 国内指導体制 確立, 莫強한 日本의 經濟力 浮上과 함께 越南戰을 통하여 超強国 美国이 紛争地域에 對한 政治的 軍事的 介入能力 限界를 認識하면서, 亞細亞에 있어서 特殊利害關係를 갖는 4大強国間에 秩序再編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既存秩序의 變化는 特히 亞細亞 小国들의 安全保障에 深刻한 危機感을 造成하여 이들 國家가 새로운 變化에 迅速히 適應함으로써 安定 속에 結着할 수 있는 方途를 競争적으로 摸索하는 段階에 이르게 하고 있다.

이러한 危機感은, 亞細亞 小国들이 無力化한 既存 集團安保機構에서 脱皮하여 제 나뉠대로 새로운 機構形態를 兪想해내고 있지만 그중 어느 하나도 汎亞細亞的 또는 亞細亞內的 限定된 一部地域에 나마 充足되고 또 支持를 받을 수 있는 形態의 機構全貌가 전혀 들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또 亞細亞 各國이 中·蘇·日과의 諸般 關係改善을 서두르고 있다는 點等에서 特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美·蘇, 美·中, 日·中, 日·蘇間의 關係改善 및 接近樣相은 이른바 緊張緩和라는 用語로써 풀이되고 있지만, 이러한 關係를 實質的 文書上的 表現에서 찾아 보면, 「닉슨」-周恩來 共同聲明(72.2.28)

中 “兩國은 亞細亞·太平洋 地域에서 支配權을 追求하지 않아야 하며, 다른 國家 또는 國家群이 그러한 支配權을 確立하려는 努力에 反對한다” 는 文脈을 通하여 좀더 具體的 內容에 接할 수가 있다. 이 宣言의 內容이 窮極的으로는 中·蘇의 對立, 中共의 影響力 增大, 日本의 抬頭, 美國의 軍事的 後退等에 依한, 情勢變化를 反映한 亞細亞地域에서의 새로운 多角的 共存의 秩序, 即 美·日·中·蘇 4 大國間의 勢力均衡을 通한 새로운 秩序를 意圖한 것으로 풀이된다 할 것이다.

美·中·蘇 더욱이 새로이 登場하는 日本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 座標를 새로이 찾아야 할 亞細亞 小國들의 運命이 이 冷嚴한 大國 「파워 폴리틱스」 속에 어떻게 展開될 것인가 하는 것은 곧 이러한 國際的 緊張緩和 概念, 即 實質적으로 이 4 強의 「힘의 交錯」와 「均衡」 속에서 形成될 수 밖에 없는 韓半島의 새로운 將來와 결코 無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4 強의 亞細亞 特히 極東政策을 再點檢하는 同時에 그들의 極東政策 속의 韓半島의 位置를 集中的으로 考慮하여 앞으로 展開될 南北韓關係의 向方을 多角的으로 展望할 수가 있을 것이다.

事實, 韓半島에서의 4 強의 勢力均衡은 그들중 어느 一國이 自國의 利益을 追求함과 同時에 他國의 利益은 考慮해야 한다는 制約性과 兩面性을 共히 지니고 있으므로 結果적으로는 既存 3 強의 韓半島介入이 漸次 減少할 것이라는 前提를 可能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前提위에 南北間의 對話가 비로소 可能해질 수 있었다고 보

있다. 美·中·蘇의 韓半島介入 減少는 結局 韓半島를 4 強의 緩  
衡地帶化함을 뜻한다고 볼 때 이러한 4 強의 構想이 現狀的으로는  
韓半島의 現狀固定化에 依한 南北分斷을 持續化시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國際關係가 一定한 公式에 依하여 形成되어  
온 것은 아니며 또 앞으로 그러하지도 않을 것이므로 長期的인  
眼目으로 國際政治 展開過程을 多角的으로 分析, 展望하면서 統一에  
의 主体的 対応姿勢 確立에 應用해 나가야 할 것이다.

## 2. 強大國의 極東政策

強大國의 特殊地域에 對한 政策은 勿論 世界 全般에 걸친 政策 속에 包含된 것이고, 또한 勢力均衡의 觀點에서 그들중 어느 한 國家만의 政策에 局限된 것이 아닌 他列強과의 關係에서 相對적으로 비롯되는 것이지만 便宜上 韓半島에서 相衝하는 四大強國의 各 國別 政策을 따로 論하고자 한다.

### 가. 四大強國의 極東政策基調

#### 1) 美 國

美國의 傳統的인 極東政策基調는 1 國家 或은 1 國家群의 獨占的인 地域支配를 抑制하여 勢力均衡을 維持함으로써 亞細亞 全般에 安定을 圖謀하는 데 있으며, 이것은 特히 太平洋戰爭의 例에서와 같이 同地域이 어느 特定國家에 依해 獨占적으로 支配되거나 그러한 努力이 이루어질 때 그것은 곧 美國의 國家 安保에 直接的인 威脅을 준다는 데서 兪想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美國의 極東政策은 過去 그 具體的 內容이 時代적으로 달랐고 또 앞으로도 그럴겠지만 根本적으로는 이러한 政策基調를 具現하기 爲한 것이었으며, 또 그러할 것이다.

#### 2) 日 本

日本은 傳統的으로 中·蘇 大陸勢力의 海洋 進出과 西歐勢力의 東進에 對抗하여 自國의 安全을 圖謀하는 한편, 亞細亞 國家로



서 極東地域 나아가 亞細亞 全域에 걸쳐 指導的 役割을 担当하려는데 있으며, 이것은 国土에 비해 人口가 粗密하고 資源이 不足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國家發展의 基本要件을 工業立國에 두고 亞細亞地域에 있어 原料供給源 確保, 輸出市場의 擴張, 海上輸送路의 安全確保에 重點을 두고 있다.

### 3) 中 共

中共이 韓國戰介入 以來 持續해 온 理念的 教條性과 革命的 戰鬥性은 1969年의 九全大會를 契機로 平和共存에 力點을 둔 地域的 "헤게모니" 追求競爭勢力 中和에 그 政策基調를 두게 되고 한편 歷史적으로 中華思想에 根底를 둔 宗主國의 立場을 되살리는 가운데 「政府 對 政府」級의 國家的 關係에 力點을 두고 있다 하겠다. 中共이 周邊地域에 對해 局地的인 武力侵攻과 反帝, 反植民國號에 立脚한 人民革命 支援等 挑戰的 現狀打破運動 一辺倒의 攻擊的 姿勢와 平和五原則等 平和的 「제스츄어」를 混用해 왔다고는 하나 이는 結果적으로 보아 대개는 自國安保를 意識한 受動的 兩面性을 지닌 것으로서 周邊國 非敵對 勢力化 또는 自國 領土의 確定, 對內指導體制 確立에 바탕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中共이 周邊諸國에 對한 膨脹努力보다는 廣大한 自國領土의 統一努力과 오히려 外侵으로 부터의 自國領土 保存努力에 力點을 두어 온 裏面에는 中共이 同地域에 對해 先進工業國과 同一한 物質的 利權所在, 例를 들어 東南亞 原料市場等에 關心을 둘 만큼 國力이나 工業化水準이 不足하다는 事實에도 起因하겠으나, 現實적으로 周邊國에

대한 膨脹進出이 中共의 死活問題도 아닐 뿐더러 그보다는 廣大한 国土 안에서 自給自足 構造 完成에 더 큰 比重을 두어야만 했던 經濟的 政策性向에도 크게 起因하는 것이다.

#### 4) 蘇 聯

帝政 「러시아」以來 오늘에 이르기까지 一貫되어 오고 있는 政策類型으로서 蘇聯이 亞細亞地域內에 不凍港을 掌握하여 南進政策을 容易하게 遂行할 수 있도록 好條件을 마련한다는 첫째 基本路線을 들지 않을 수 없겠다. 이러한 政策은 蘇聯으로서 앞으로 어떠한 環境의 變化가 있다 하더라도 拋棄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平和共存 政策을 들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平和共存政策이 어디까지나 國際的 環境趨勢에 適應하여 最大의 收獲을 얻기 爲한 現實主義的 戰略일 따름이지 이로써 蘇聯이 共產主義에의 念願을 拋棄한 것이 아니므로 오히려 國政策의 底邊에는 共產主義의 最終的 勝利를 爲한 暫定的 手段으로써 採択하고 있다는 點을 看過할 수 없다.

세째로는 蘇聯이 極東政策 遂行過程에서 最大의 沮害要因인 中共을 牽制, 包圍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蘇聯의 政策은 中共과의 對立이 甚했던 60年代初부터 東南亞地域 國家들과의 關係改善 動向에서 教條主義的이고 好戰的이었던 中共보다 훨씬 好調的이었으나 中共이 九全大會以後 現實的인 蘇聯의 積極的 亞細亞進出을 牽制, 沮止시키려는 意圖로 和解政策을 試圖하게 되자 蘇聯은 새로운 形態의 南進政策, 또한 中共 包圍, 牽制政策으로서 亞細亞 集團安保體

制를 積極 推進하게 된 것이다.

## 나. 四大強國의 極東政策 變化推移

### 1) 美 國

亞細亞地域은 当初 美國에게는 政治上, 經濟上의 關心地域이긴 했으나 太平洋을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國家安保上의 直接的인 威脅을 느끼지 않았으며 따라서 美國이 軍事的으로 介入을 必要로 할 만큼 國家利益上의 重要性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日本의 侵略的 膨脹主義에 의한 真珠灣 攻擊直後 同地域이 美國에게 第一義的 意味를 갖게 되었으며, 2次大戰 結果 亞細亞 最強國 日本의 敗退로 이 位置를 蘇聯이 占하려 함에 따라 美國은 戰前의 美·中協調의 「패턴」을 통하여 日本 敗北後의 空白을 메꾸고 그 바탕 위에서 蘇聯과의 「밸런스」를 維持해 가려고 하였다. 그러던 중 中國에 있어서의 共產政權樹立(49.10)은 蘇聯의 進出을 意味하는 것으로 判斷되었을 뿐 아니라 韓國動亂의 勃發과 中共軍의 參戰으로 戰後 20餘年동안의 美·中共間의 敵對가 始作 關係되었다.

이렇게되자 美國이 亞細亞에서 勢力均衡을 維持할 길은 自國의 軍事力으로 中共을 封鎖하여 中·蘇 共產勢力의 進出을 阻止하는 方法밖에 없었으며, 이제는 日本을 美軍事力의 支配下에서 同盟國으로서 極東 冷戰體制의 一翼을 担当케 하는 한편 各國과 相互 安全保障條約을 締結, 中共, 蘇聯을 封鎖 乃至 牽制시키려는 政策을 繼續해 왔다. 美國의 極東政策에 또 하나의 轉換點을 가져다 준

것이 바로 越南戰爭으로서 이 戰爭에서 「달러」流出, 「인플레이」高騰, 失業者增加等 經濟的 問題와 自国人命의 莫大한 損失, 國際的 北爆批判等 國內外的 威信의 失墜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越南戰爭의 挫折로 極東에서의 絶對的 軍事力 優位를 維持할 自信을 잃어가는 狀況으로 變貌하였다. 때를 같이하여 美國을 둘러싼 國際環境에도 中共影響力の 增大, 中·蘇對立, 日本의 經濟的 大國化等 國際環境의 變化가 일어났고, 美國으로서는 이러한 變化와 美國自身의 變化를 調整함으로써 亞細亞에 對한 影響力을 保存할 수 있는 새로운 方向의 秩序摸索이 要請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닉슨 독트린」宣稱을 그 序章으로 中共, 蘇聯, 日本과의 關係調整이 차례로 나타나게 된다.

## 2) 日 本

2次大戰前 「러시아」의 南進政策에 對抗한 露·日戰爭(1904)에서 勝利한 日本의 自信感이 滿州事變以後 大陸支配를 爲한 武力進出을 敢行하게 했고 極東地域에서 西歐勢力을 逐出함으로써 帝國主義的 膨脹政策이 追求되기에 이르면서 太平洋戰爭으로까지 發展하게 된 것이다. 美國에 마지막 하나까지 徹底히 敗北한 日本은 美軍政下에서 美國의 政策에 追從할 수 밖에 없었고, 韓國動亂으로 特需에 恃타 急速히 復興하면서 東南亞諸國에 對한 戰爭報償을 通해 輸出市場을 擴大해 가는 한편 美·日安保條約에 依拠, 國防은 美國에 依存하면서 政經分離原則에 依한 經濟的 實利를 繼續 追求해 왔다. 또한 美國의 越南戰 遂行過程에서도 後方基地 役割을

担当하여 冷戰体制下에서 繼續 美国의 中共 封鎖政策에 同調해 오  
는 말하자면 日本自体的 政策이라는 것은 不在狀態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3) 中 共

1842年 南京條約으로부터 第2次大戰 終了에 이르는 100餘  
年 동안 中國은 先進工業 列強들의 侵略對象이 되어 自身の 主權  
을 維持하기도 어려웠으므로 周辺國 問題에 實質적으로 関与할 餘  
裕가 없었다. 이 時期를 거쳐 2次大戰以後 中共政權 樹立期까지  
는 日本의 大陸侵略과 蘇聯의 南下에 對抗하는 美国과의 協調關係  
를 維持해 왔었다.

中共政權의 成立과 함께 ① 自國의 獨立, 領土, 主權 保全  
② 社會主義 諸國과의 友好, 協力, 相互援助關係 發展 ③ 各國人民  
과의 友好協力 ④ 帝國主義 侵略 및 戰爭政策에 反對(共同綱領  
第54條) 한다는 外交原則下에 特히 中·蘇 相互援助條約(50.2.14)  
으로 蘇聯과 密着한 時期로서 韓國戰爭에 介入함으로써 對美關係는  
露骨的 敵對關係에 突入하게 되었다. 以後 54年의 周·「네루」  
會談, 55年 「반둥」會議를 거치면서 이른바 中共의 平和五原則이  
亞阿政策의 基調를 이루게 되었다. 이 亞阿政策은 여러 迂餘曲折  
을 겪어 왔다고는 하나 아직도 中共 對外政策의 큰 比重을 차지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시 文化革命時期로부터 中·蘇紛爭은 理念的인 것에서 國境問題  
化하고 蘇聯은 그 第一의 敵國임이 確然해졌으며 70年代에 들어

国内的 安定과 더불어 蘇聯의 軍事的 压力이 中共外交의 第1次的 課題로 登場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狀況下에 中共이 核兵器의 現代化 進展을 보고 國際的 中共의 正統性 承認「뭉」과 UN 加入, 美國의 「닉슨·독트린」實現 에 발맞추어 美國에 接近하게 되었다.

#### 4) 蘇 聯

清朝의 国力衰退를 利用한 「러시아」는 璦琿條約(1858)을 筆頭로 黑龍江 北岸의 「시베리아」 沿海州를 入手함으로써 太平洋 에 沿한 港口 「울라디보스토크」를 獲得하고 日·淸戰爭(1894) 을 契機로 所謂 3國干涉으로 遼東半島에 進出, 1903년에는 韓半 島의 北緯39度線 以北의 中立化를 要求하는 等 南進政策을 繼續 하였으나 露·日戰爭敗北로 因해 다시 蘇滿國境으로 後退했다가 2 次大戰의 戰勝國으로서 韓半島에 進駐, 韓半島에 38線을 劃定함으 로써 傳統的인 南進政策의 基盤을 造成하는 데 一但 成功했다. 韓國動亂을 前後하여 蘇聯은 戰勝國으로서의 立場을 活用, 中國의 共產化를 積極 支援하여 中共政權을 樹立시킨 뒤 日本을 假想敵國 으로 한 中蘇同盟條約(50.2.14)을 締結하여 侵攻의 교량의 役 割을 해 온 韓半島의 支配體制 確立의 安定된 永久化를 圖謀하고 北韓, 中共을 使族하여 武力統韓을 試圖하였으나 失敗하였다. 그 後 韓國의 防衛力 增大, 日本國力の 擴大를 警戒, 蘇·北韓 友好協 力 援助條約을 締結(1961.7.6)하여 北韓에 對한 再支配를 企圖 했으나 中·蘇紛爭關係 調整失敗로 北韓의 中共偏向을 助長시키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對日關係 改善, 東南亞諸國과의 紐帶強化로 亞細亞에서의 對美牽制 및 中共包圍政策을 積極推進하게 되었다. 그러나 「닉슨 독트린」의 實現과 더불어 美·中·蘇 三角協調體制가 不可避하게 招來됨에 따라 蘇聯은 國境을 接한 中共勢力의 沮止를 爲해 日本에 接近하지 않을 수도 없게 됨으로써 極東에서의 4強체제의 角逐時代가 到來한 것이다.

다. 今後 展開 樣相

#### 1) 美 國

美國이 追求하는 極東의 새 秩序 即, 美·日·中·蘇 4角체제의 構圖는 4大國 各自가 自立的인 政策을 追求하고 相互의 關係가 重要하게 되며 相互間에 서로 牽制함으로써 均衡을 維持하는 流動的인 狀況을 造成하려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를 爲해 美國은 앞으로의 4角체제 調整에 있어서 中共에 對해서는 美·日, 美·蘇關係를 通하여 牽制하고 日本에 對해서는 美·中關係를 通하여 蘇聯에 對해서는 美國自身の 核抑止力과 美·中關係를 通하여 牽制하는 形態를 取할 것이다. 이러한 形態는, 日本의 威脅에 對해 美·中協調체제로 그 後의 蘇聯의 進出에 對해 또한 美·中共 協調체제로 冷戰체제下에서는 美·日協力체제로 均衡을 取하려 했던 過去의 「패턴」 即 「固定化 속에서의 安定, 方式과는 달리 個個國과의 關係를 通해서 牽制하는 「流動 속에서의 安定, 方式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意味에서, 美國은 蘇聯과

中共 兩側에 對話의 通路를 갖고 있다는 有利한 立場에서 앞으로의 4角體制下에서의 調整者的 位置는 繼續 確保하려고 할 것이다.

## 2) 日 本

日本은 極東에서의 4角體制 展開에 따른 美·中·蘇와의 等距離外交로 對美 依存에서 脫皮하고 独自の 外交를 繼續 追求할 것이며, 中共에 對해서는 極東의 緊張緩化를 圖謀하는 가운데 亞細亞問題에 對한 發言權 確保의 見地에서나 中共에서의 廣大한 市場 浸透를 爲해서나 온갖 方法을 다하여 積極的으로 關係를 強化해 나갈 것이다.

蘇聯에 對해서는 이미 始發한 經濟協力關係의 바탕 위에 政治的 次元의 關係를 強化함으로써 美·中共의 野심을 牽制하는 데 共同步調를 取하려 할 것이며, 勿論 經濟協力を 通하여 政治的 影響力을 擴大하려는 試圖는 亞細亞諸國에 對해서도 마찬가지로 適用될 것이다. 또한 軍事的 側面으로 볼 때는 國際的 發言權 強化를 爲해서 自國의 經濟活路(海上輸送路) 確保를 爲해서나 最少限 「말라카」海峽에 이르는 極東半徑에 美·日安保體制를 維持하는 가운데 制空, 制海于先의 防衛力 強化를 企圖할 것이다.

## 3) 中 共

中共의 對亞政策基調에는 共產主義의 本性인 赤化浸透要因과 中國固有의 傳統的 中華思想이 特徵的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中共의 當面課題는 恒常 그래 왔지만 廣大한 國土에서 自給自足 構造를 完成하는 데 있고, 또한 諸般水準이 아직 膨脹的 性格을 띠는 段階



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自身の 軍事戰略的 能力이 어느 水準에 到達할 때까지의 相當期間 동안 極東의 美軍駐屯을 默認하는 以外에는 選擇의 餘地가 없을 것이며, 可能的 限度內에서 紛爭의 要因을 發生시키려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即, 現在 中共이 構想하는 極東에서의 力關係를 土臺로 分析해 보면, 極東에서의 美國의 影響力을 現實로 認定하고 繼續的인 對話로써 台灣問題等を 解決하려고 할 것이며, 自身の 力量이 水準에 未達한 現時點에서 蘇聯의 南進을 美國과 함께 排除토록 하는, 한편 日本의 本能인 膨脹的 性向 亦是 美國과의 協調로 牽制하되, 經濟的, 人的交流等 必須分野에서의 紐帶強化를 持續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多角的 均衡의 破綻을 招來하지 않기 爲해 되도록 周邊 問題의 現狀固定으로 새로운 紛爭原因을 만들려 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4) 蘇 聯

亞細亞에 있어서 蘇聯의 傳統的 南進政策에 對한 最大迫害要因인 中共勢力을 積極的으로는 包圍하고 消極的으로는 牽制하는 것이 蘇聯의 亞細亞政策 主流이었고 또 그러할 것이나 다만 亞細亞에서 最強國으로 浮上하고 있는 日本이 亞細亞에 있어서 大宗勢力이라는 自負下에 異質的인 蘇聯의 介入을 歡迎하지 않을 뿐 아니라 可能的 限 亞細亞地域에서의 主導的 位置에서 政治的 調整役割을 試圖하려는 傾向이 蘇聯에게 또 다른 極東政策上의 重要條件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蘇聯이 向後 日本과의 紐帶를 強化하여 中共 및 美國

에 對한 牽制, 安定을 爲한 勢力으로 利用하려 할 것은 必至의 事實로 豫見되고 있으며 또한 中共封鎖政策을 遂行하기 爲하여 中共周邊國家들에 對한 可能的 諸般協力과 援助로 拠点을 確保함으로써 終局的으로는 亞細亞集團安保體制에까지 誘導하려 할 것이다.

다음으로 蘇聯이 平和共存政策을 追求하게 된 것이 결코 國際共產主義運動의 永久的 拋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流動的 國際環境에 適應한다는 現實主義的 柔軟政策이므로, 蘇聯은 앞으로 平和共存 路線을 堅持하는 가운데 極東諸國에 對한 民族解放鬪爭支援을 強調하고 時宜를 틈타 局地紛爭을 自國에 有利한 方向으로 支援할 可能性을 언제나 留保하게 될 것이다.

### 3. 強大國의 極東政策內에서의 韓半島의 位置

가. 韓半島의 戰略的 價值

#### 1) 美 國

美國의 對韓半島, 特히 對韓國 戰略的 價值觀은 第2次 世界大戰 以後의 情勢의 變化에 따라서 달라져 갔다.

即, 冷戰體制下에서의 美國의 對韓國 戰略的 位置는, 韓國이 共產體制와 最先端에서 對峙하고 있다는 점에서 共產主義 體制에 비해 自由民主主義 體制의 優越性을 誇示하는 展示的 拠点으로서 評價되었으며 韓半島의 緊張은 日本에 對한 威脅이며 이는 亞細亞의 不安과 緊張造成이라는 觀點에서 韓國의 位置를 日本의 防衛와 安全을 爲한 前哨的 地域이라는 對日 從屬關係에서 評價되었다.

한편 國際政治의 多極化에 따라 東·西 緊張緩和 「부드」가 造成됨으로서 美國은 韓國을 共產主義 支配下의 亞細亞와 日本을 起點으로 하는 東部 및 南部 亞細亞에 있는 諸島嶼國間의 緩衝地帶로 評價하는 一方 韓半島가 中共·蘇聯·日本에 隣接하고 있음으로서 美·日·中·蘇 4大強國의 利害가 交叉하고 있는 典型的인 地域이기 때문에 韓半島 情勢의 發展은 東北 亞細亞 緊張緩和의 關鍵이라는 側面에서 戰略的인 重要性을 評價하고 있다.

#### 2) 日 本

日本에 있어서 韓半島는 地政學的으로 大陸으로 부터 日本列島의 허리를 찌르는 突出部와 같이 되어있기 때문에 大陸勢가 海

洋으로 進出하는 橋梁의 役割을 하고 있으며 反對로 日本等 海洋勢가 大陸으로 進出하는 通路로 되어있다. 現在 韓半島에는 美軍이 駐屯하여 大陸勢力과 均衡을 이루고 있어 日本의 安保를 保障해 주는 緩衝地帶로서 評價하고 있다.

### 3) 中 共

中共의 立場에서는 韓半島의 存在가 自身の 安保에 直結되어 있다는 觀點으로서 韓半島에 挑戰勢力이 抬頭하거나 上陸함을 不許하는 政策으로 一貫해 왔으며 韓半島 問題에 介入함에 있어서는 대개 宗主國的인 立場을 取해온 反面 特別한 經濟的 利權에 對한 關心은 없었으며 이와같은 中共의 觀點은 現在의 中共-北傀關係에서도 그대로 一貫되고 있다.

### 4) 蘇 聯

마지막으로 蘇聯은 自國의 領土保存을 爲하여 前線防衛를 中共이 担当하고 그 前哨基地로 韓半島를 指目해 왔다. 더우기 韓半島는 蘇聯이 太平洋을 制壓하기 爲한 不可欠한 要衝基地로 看做해 왔고 不凍港이 없는 蘇聯은 3面이 바다로 둘러쌓인 韓半島 掌握에 注力, 勢力을 扶植해 왔다.

나. 韓半島에 對한 強大國의 既存政策

#### 1) 美 國

美國의 既存 對韓政策은 對韓戰略的 價值에 立脚하면서 對亞細亞 政策의 一環으로서 取扱되었으며 따라서 美國의 對韓政策은

韓半島 周辺情勢 變化에 依해 많은 影響을 받아 왔다.

1945年 韓國解放以來 1950年 6.25 動亂 勃發時까지는 戰後 日本 및 中國問題處理過程에서 附隨的으로 取扱되어져 왔으며 戰後의 急激한 復元措置에 따른 韓國駐屯軍의 早期的 目標없이 韓半島의 南半部를 即興的으로 支援한데 不過했다.

6.25 動亂을 契機로한 1950年代는 東·西 冷戰의 激化에 따른 美國의 全世界的 對韓膨脹 沮止過程에서 血盟關係가 이룩되고, 國際秩序의 兩極化로 韓半島에서 美·蘇(中共包含) 對決關係가 體制化됨에 따라 確固한 對韓公約에 立脚한 韓·美紐帶를 確立하여 政治, 軍事的 對韓關係 및 政策을 積極化 시켰었다.

그러나 美·蘇 對決關係의 共存關係로의 移行과 國際情勢의 多元化 傾向에 따라 1960年代 부터는 冷戰的 對決關係를 背景으로 해온 美國의 對韓關心이 弛緩되기 始作했으며 韓國戰爭 終結以來 韓國의 民主秩序 確立不振에 따른 對韓負擔의 長期化 展望으로 血盟關係에 立脚해온 美國의 對韓政策은 消極化되었다.

1960年代 中盤, 越南派兵을 통한 韓國의 積極化인 對美協調에서 韓·美關係가 一時 緊密化로 再顯되었으나 越南戰의 反省에 起因한 美國의 對外政策 全面 再評價 趨勢에서 50年代 以後의 美國의 傳統的이고도 一方的 對韓支援 政策은 裏面的으로 그 變質이 促進되었다.

이러한 美國의 對韓政策의 推移는 「닉슨·독트린」의 宣言과 國際秩序 再編趨勢의 發展 및 現狀維持에 依한 共存趨勢를 背景으로

하여 1970年以後 駐韓美軍의 一部 減縮이라는 方向으로 表面化  
되었고, 韓半島 周辺情勢의 4 大國化에 따라 既存 美國의 對韓政策  
은 韓半島의 緊張緩和를 爲한 對韓半島 政策이라는 包括的 觀點에  
서 推進, 發展되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美國의 既存 對韓政策은 冷戰體制에서 비롯된 美國의 對  
韓 및 對中共 軍事的 對決關係를 背景으로 하여 發展되어져 왔으  
며 韓半島 問題의 窮極的 解決을 爲한 長期的 目標보다는 西太平  
洋 戰略 構想의 變貌에 따라 軍事的 當面 目標에 置重하여 臨機  
應變式으로 取扱되어 왔다.

## 2) 日 本

日本의 對韓半島 政策은 自國 安保의 觀點에서 出發하여 韓  
半島가 統一되는 것보다는 分斷狀態를 固定시키는 것이 韓國이 大  
陸勢力圈에 들어가는 것을 防止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日本의 影  
響力을 보다 強力히 行使할 수 있다는 基調下에서 韓半島政策을  
展開시키고 있다.

日本은 1965年 韓·日條約을 締結하여 南北韓中 韓國을 攄함으  
로서 美國의 韓國防衛 任務를 側面으로 支援하여 北傀와 防衛條約  
을 맺고있는 中·蘇에 對하여 勢力均衡을 維持케 했다. 이와 關  
聯한 1969.11 美·日 共同聲明 가운데에 이른바 韓國·台灣關係  
條項을 挿入하여 「韓國의 安保는 日本의 安保에 緊要하다」고 闡  
明함으로서 日本의 對韓安保觀을 더욱 分明히 했었다.

한편 日本의 對韓 經濟勢力은 74.6 末現在 財政借款 5億4,800

萬弗，商業借款 6億9,100萬弗，直接投資 4億6,700萬弗에 이르고 있는바 이것은 韓國의 經濟的 隸屬化를 통하여 恒久的인 市場으로 確保하는 同時에 政治的인 安全保障의 效果도 아울러 配慮하고 있다는 것을 意味하고 있는 証左이다.

### 3) 中 共

中共의 對韓半島 政策은 6.25 動亂時에 中共이 直接介入함으로써 北傀体制의 崩壞를 直接 阻止했고 1953.11의 中共-北傀 經濟, 文化 合作協定(3億6,300萬弗 援助)으로 부터 71.9의 無償軍援協定에 이르는 一聯의 支援을 通해 北傀를 擁護해 왔다.

統韓問題에 關한 中共의 態度는 北傀側 主張을 그대로 引用, 喬冠革가 UN에서 演說(74.10.24)한바와 같이

① 北傀의 南北對話等 自主的 平和統一 努力支持

② 韓國當局者들이 永久分裂을 劃策하고 「北으로 부터의 威脅」이란 口實下에 人民들의 基本的 人權을 剝奪하고 있다고 韓國側非難.

③ UN기치하의 모든 駐韓外國軍의 撤収等を 主張해 오고 있다.

따라서 韓國에 對한 中共의 態度는 敵對政策에 一貫하고 있는바 最近까지도

① 駐韓美軍 撤収主張

② 南韓人民革命 煽動等이 繼續되고 있다.

### 4) 蘇 聯

한편 蘇聯은 淸朝末葉 中國으로 부터 北京條約(1860年)에

依해 沿海州 「울라지보스토크」港을 確保한 以來 太平洋 進出의 前哨基地로서, 不凍港으로서의 拠点 獲得 對象에 韓半島를 目標해 온바 있으며 아울러 韓半島에로의 進出로 因해 日本의 勢力擴大와 膨脹을 阻止하려는데 主眼點을 두어 왔다.

蘇聯의 南進計劃은 第2次 世界大戰 終了를 契機로 韓半島에 對한 第1次的인 橋頭堡獲得에 成功, 北傀의 共產主義體制를 爲한 積極支援으로 衛星國化를 더욱 強化했으며, 中共과의 協力, 韓半島에 對한 武力赤化統一 達成을 目標로 北傀의 對南武力 侵攻을 全面的으로 積極支援하게 되었다. 그러나 蘇聯은 北傀에 依한 韓半島 武力統一의 失敗를 契機로한 中共勢力의 固着化를 排除하고 蘇聯에의 獨占的 支配體制 復歸를 企圖했으나 中·蘇對立으로 因한 北傀의 自主路線 強化로 挫折됨에 따라 經濟支援을 비롯한 高度戰術裝備 提供等으로 北傀의 中共 偏向阻止 乃至 北傀의 對蘇聯 依存度 強化에 注力하면서 또한 中共, 日本等の 韓半島 進出을 招來하는 事態發展을 警戒하여 北傀의 蘇聯依存度 持續을 바탕으로 하는 韓半島 現狀固定化 政策을 追求하고 있다.

다. 韓半島政策 變化 推移

#### 1) 美 國

美國의 今後 韓半島 政策은 美·日·中·蘇의 이른바 4角體制下의 亞細亞 秩序를 維持하기 爲해 韓半島에 있어서의 現在의 勢力形態를—現狀固定化 即 2個의 韓國— 維持하려는 것으로 보



이다. 이것은 韓半島에서의 現狀變更은 東亞細亞 勢力均衡을 動搖시켜 그 過程에서 戰爭은 不可避하게 되고 美國은 이에 介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美國은 이러한 現狀 固定化 政策에 따라 「韓半島 問題의 韓半島化」를 繼續 推進할 것이며 그 歸結은 韓國動亂의 休戰狀態를 完全한 平和狀態에로 結實시키는 方向으로 推進할 것이다.

現狀 固定化에 依한 南北의 分裂現狀은 南北間에 冷戰構造의 緊張을 持續시킬 것이기 때문에 美國은 北傀와도 關係改善을 推進함으로써 韓半島에서의 緊張을 解消시키려 할 것이다.

그러나 北韓地域은 繼續 中·蘇의 影響圈內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에 對한 抑制努力으로서 韓國과의 政治的 紐帶關係는 持續할 것이다.

또한 韓國은 共產勢力에 對한 牽制 拠点으로서의 價值가 있다는 點 以外에 日本의 軍國主義化 牽制뿐 아니라 對共, 對日 情報蒐集 拠点으로서의 役割을 하도록 하기 爲해 最少限의 象徴的인 美軍만이라도 韓國에 繼續 殘留시킬 것으로 보인다.

## 2)) 日 本

日本은 4大強國中 唯一하게 核을 保有하고 있지 않으며 經濟繁榮의 基礎가 되고 있는 原資材의 海外 依存度가 높아 4極體制下에서의 外交基本姿勢는 취약점으로서 主導的인 外交보다는 情勢에 對處하는 追隨外交를 展開할 것이나 韓半島 問題에 關해서는 美國의 役割減少에 反比例하여 主導的인 役割을 擔當하러 할 것이다.

이와 함께 日本은 現 韓半島의 緊張狀態가 長期化할 것으로 判斷하고 日・北傀의 交流를 增大시켜 日本 軍國主義에 對한 北傀의 警戒心을 解消시킴으로서 韓半島를 緊張緩和의 方向으로 誘導하는 一方 中共接近을 爲한 基盤으로 活用하려할 것이다.

또한 日本은 自國의 安保에 直結되는 韓半島에 對한 影響力을 增大시키기 爲해 南北韓 同時 UN 加入을 積極 推進하는 등 今後 北傀에 對하여서도 政治的 接觸을 增大해 나갈 것이며 이를 漸次 擴大하여 日・北傀關係 正常化 段階로 誘導하려 할 것이다.

窮極적으로 日本은 韓半島의 分斷狀態를 固定化하는 것이 韓半島가 大陸의 勢力圈에 들어가는 것을 防止할 수 있으며 日本의 影響力을 보다 強하게 行使할 수 있다는 判斷下에 分斷狀態下에서 南北韓 等距離外交를 通해 韓半島를 操縱하면서 自國의 利益을 追求하려 할 것이다.

### 3) 中 共

한편 中共은 既存 對韓敵對視 政策이 繼續되는 가운데에서도 最近에는

- ① 韓半島에 平和條約 必要性을 周恩來가 指摘한바 있고
- ② 南・北 赤十字會談에 關해 「今後 朝鮮에서의 緊張緩和가 이루어진다면 朝鮮뿐만 아니라 日本과 亞細亞에까지 影響을 미친다」(71.8.16. 人民日報)고 評價하는 것을 보면 今後의 中共의 對韓半島 政策은 韓半島의 現狀固定에 依한 緊張緩和의 方向으로 變化 推移를 보일 것은 分明하다.

또한 中共은 日本의 韓半島 進出이나 蘇聯의 對韓接近 共히 警戒하고 있는바 韓半島에서의 駐韓美軍이 撤収함으로서 생기는 「힘의 眞空」에 日本等の 다른 外勢가 上陸하는 事態를 極度로 憂慮하고 있다.

以上の 事實을 綜合 分析해 볼때 中共의 韓半島 政策 變化 推移는

- ① 적어도 暫定的으로는 現狀固定化에 依한 緊張緩和와
- ② 새로운 外勢의 韓半島 上陸을 極力 回避한다는 것으로 要約되며, 새로운 外勢가 上陸하기 보다는 차라리 美軍의 駐屯을 어느 一定 期間동안 默認할 수도 있다는 推測은 可能한 것이다.

#### 4) 蘇 聯

蘇聯의 境遇, 最終的으로 韓半島의 完全 掌握을 目標로 하고 있기 때문에 韓半島가 어떤 強大國에 依한 支配를 願하지 않고 韓半島 掌握의 段階的인 戰略으로서 于先 現狀固定化 또는 中立化를 推進하여 蘇聯의 影響力 擴大에 努力할 것이다.

따라서 韓國으로 부터의 美軍의 撤収를 促求하는 한편 美國의 影響力을 弱化시키는데 注力하면서 中共・日本의 直接的인 介入不願 中共 - 北傀, 日本 - 北傀의 關係 密着을 警戒하여 中共・日本의 韓半島에 對한 勢力擴大를 排除하려할 것이 分明하다. 中共을 牽制하기 爲하여 北傀에 對한 援助를 繼續함으로서 韓半島에 對한 影響力을 維持하려고 할 것이다.

## 라. 展 望

4大強國의 對韓半島 戰略價值觀에서 日本은 中共과 함께 韓半島를 自國의 安保에 直結視하고, 蘇聯은 南進의 前哨基地視하고 있으며 美國은 共產勢力의 進出을 抑制하는 防禦基地視하고 있어 韓半島는 4大強國의 利害가 顯在的으로 集中하고 있으며 潛在的으로 는 利害가 對立하고 있는 地域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第2次 世界大戰의 結果로서, 南北으로 分斷된 韓半島에 對해 4大強國이 展開해 온 冷戰政策은 結局 韓·美·日의 南方3角關係와 北傀, 中·蘇의 北方3角關係를 形成, 對立하고 있는 가운데서 勢力均衡을 이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現在 勢力均衡의 崩壞를 가져올만한 現狀의 變更은 一方의 利害에 決定的인 打擊을 주게되며 따라서 그러한 事態가 發生되었을 때에는 背後 強大勢力은 本意아닌 直接介入을 回避할 수 없는 立場이다.

그러므로 4大強國은 各己 自國이 말려들지 않을 수 없는 事態 發生의 要因을 除去하기 爲한 解決方案으로서 各己 다른 意圖下에서 韓半島問題의 「現狀固定化」를 追求하고 있다.

이것은 곧 韓半島 問題의 內部問題化를 促進하는 結果가 되는 것이며 이러한 狀況에서 南方3角關係 構成員인 美·日은 北傀에 接近意圖를 分明히 하고 있는데 反해 北方3角關係 構成員인 中·蘇는 中·蘇의 對立下에서 北傀에 對해 競爭關係에 있는 만큼 北傀의 反撥을 사지 않기 위해서도 韓國에 接近할 수 없는 立場에 있어, 結果的으로 現 4角體制下에서는 韓國이 不利한 位置에 놓일 可能性이 있다.

#### 4. 南北韓關係의 向方

以上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韓半島는 強大國의 利害關係에 따라 熱戰에서, 冷戰으로, 冷戰에서 緊張緩和 時代로 접어 든 狀況에서 強大國의 緊張緩和政策의 基本이 되고 있는 現狀凍結政策의 一環 속에서 強大國의 韓半島政策은 韓半島 兩分의 永久化를 招來할 現狀固定化 或은 「石化」를 志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어떤 意味에서 우리의 統一政策과는 正面으로 背馳하고 있다.

強大國의 政策은 「두 個의 韓國」을 재촉하고 있으며 「두 個의 韓國形成」의 危險性은 더 잘못 發展하면 「두 個의 韓國形成」이라는 第二의 「얕타」體制 即 韓半島 分斷을 固定시킴으로써 完全히 現狀을 凍結하겠다는 그 基底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두 個의 韓國形成」은 이미 日本의 最近 對北傀政策에서 보듯이 本格的인 日本의 對韓半島 介入政策의 次元과 路線에서도 그리 멀지 않으며 側面支援까지도 받고 있다 할 수 있겠다.

이 「두 個의 韓國形成」은 앞으로 美, 中共, 蘇聯 特히 韓半島가 單一政治 單位로서 統一勢力化를 忌避하고 있는 日本의 主導下에서 韓國의 「現狀凍結」을 國際社會에서 合法化시키기 爲해 「普遍性 原則을 適用한다」는 前提下에 分斷國 同時加入이란 形成으로 結局 UN으로 끌고 가 落着될 結果를 招來할 것이 豫想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짧은 近代國家 形成이라는 歷史 속에서

처음으로 「발칸」화가 이루어지려는 운명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36年間の 凄絶한 植民地生活 以後 解放되었으나, 다시 冷戰과 熱戰을 겪고 겨우 벗어나자마자 韓半島의 他意에 依한 分割로 完全別個의 分断國家가 되도록 強要받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列強의 韓半島에 對한 現狀固定化 要因과 아울러 韓半島에 있어서의 現狀打破要因을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韓半島의 現狀을 打破케 하는 要因은 곧 새로운 秩序의 條件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現狀固定化」의 要因보다 複雜하고 多樣하다. 過去 20餘年間 韓半島는 韓美同盟體制라는 確固한 安全保障體制에 依하여 平和가 維持되어 왔다.

그러나 美, 中共, 日, 蘇聯의 4角關係의 和解進行狀況을 韓美同盟體制가 앞으로 「韓半島의 平和秩序」體制 속에 「緊要한 一要素」이긴 하나 不可避하게 「充分條件」은 될 수 없다는 이른바 20餘年間 基本秩序였던 韓美同盟體制的 修正이 介入되기 始作했으며 이미 韓半島 現狀의 基本的인 修正 即 現狀打破의 基本要因이 되고 있다.

韓美同盟體制的 修正은 最近 日本의 對北傀 接近에서 보듯이 戰後 처음으로 對韓半島 介入政策으로 나서고 있는 것에 韓美同盟體制로써 對抗하기에는 그 効力이 없으며 無力하다. 오히려 美國側이 東北亞에서 日本의 그 어떤 役割을 強要하고 있다는 疑懼가 強調되고 있는 實情이다. 日本의 本格的인 韓半島 介入政策에서 보듯이 韓美同盟體制가 이를 阻止해 주거나 더욱 解決해 주지

못한다고 하는 「딜레머」에 부딪치고 있다고 할 것이며, 또 하나의 「딜레머」는 韓美同盟体制가, 軍事的 統一을 한다고 하는 北傀의 軍事的 「南進」을 阻止하는데는 그 効力이 있으나, 積極的으로 北傀라는 「東北亞의 緊張根源」을 解消시켜 주거나 除去해 주는 機能을 다하지는 못할 뿐만 아니라 美国이 中共과의 接近에서 그리고 韓美同盟体制의 脫UN的 性格 및 漸進的인 美軍事力의 撤収에서 北傀라는 韓半島의 「딜레머」를 解消시켜야 할 그 一次的 責任이 우리에게 지워지고 있다는 點을 看過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點에서 南北關係 向方은 우리의 積極的 設定 企圖에 따라 어느 程度 人爲化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가. 内部的 要因에 依한 考察

南北韓 關係가 北方 三角關係와 南方 三角關係의 對峙 및 變化樣相에 따라 影響이 있다는 것은 否認하지 못할 事實이지만 이러한 狀況 속에서도 北韓은 单独으로나 蘇聯 또는 中共을 背景으로 해서 美国 即 南韓과 日本에 威脅的인 存在가 되어서는 안 되며 同時에 南韓이 单独으로나, 美国이나 日本을 背景으로 하여 中共 또는 蘇聯에 그리고 北傀에 威脅的이어서는 안 된다는 論理的 原則이 美国과 中共間의 和解와 美国과 蘇聯間의 共存關係의 体制化 過程에서 默示的으로 合意되거나 前提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或者是 独逸의 統一이 周边国과 列強이 願하지 않고 條約으로

分断을 固定化했기 때문에 어려우며 韓國의 統一은 보다 쉽다고도 한다. 그러나 統一된 政治秩序가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에 대해 美国, 中共, 蘇聯間에 合意되기란 거의 不可能하고 東西獨이나 韓國이 各己 20餘年에 걸쳐 歷史를 달리해 왔다는 現實은 容易하게 解消할 수 없다고 보면 統一이 어렵기는 兩者 마찬가지로 할 것이다.

이러한 狀況 속에서 美, 中共間 和解와 美·蘇共存關係 體制化를 爲한 길에 妨害가 되지 않고 同調하려면 南北間에 交流의 길이 있을 뿐이다.

우리가 統一이라고 할 때는 單一韓民族이 그리고 韓半島의 全領土가 모두 單一的 政治制度下에서 그리고 하나의 經濟體制下에서 살게 됨을 뜻한다면 이는 政治制度的 面에서의 統一을 말하는 것이 되며 民族各者의 入場에서 보면 韓半島 全体가 民族의 單一生存圈 乃至 生活圈으로 實現됨을 뜻한다.

이러한 民族的 念願인 統一은 現在 列強들이 考慮하고 있지 않으며 設使 우리가 이러한 統一을 熱望한다고 하더라도 統一된 韓半島政治에 대해 列強이 合意할 수 없기 때문에 分断狀態를 그대로 두고 南北間 交流를 통하여 統一의 가장 基礎的인 内部的 念願을 實現케 하는 것이 許容되고 있을 뿐이다.

이리하여 制度的으로는 分断을 初步的이나마 制度化하는 것을 想定하고 個人 生活面에서의 統一의 念願을 交流라는 方式으로 實現시키는 方法을 提示한 것으로서 7·4 共同聲明은 分断四半世紀의 歷



史的 史實을 받아 들이고 이 위에서 交流를 통하여 統一의 念願을 部分的으로나마 實現시켜 보자는 南北韓間 最初의 合意文書가 되고 있다. 南北이 交流를 實施하려면 南北間 最小限 安定된 關係가 必要하며 이 南北關係 安定化는 分斷의 制度化를 通해서 비로소 可能하지만 統一을 爲한 交流가 分斷의 制度化를 必要로 한다면 統一의 目標達成을 爲해 矛盾된 現象임에는 틀림없다.

여하튼 이러한 分斷의 制度化가 關係安定化를 前提로써만 交流가 可能하다고 보면 南北統治者에 相互體制를 默認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곧 相互體制를 鞏固히 할 權利를 彼此 諒解해야 함을 뜻하는 것이다. 現今 南北間 對話가 中止되고 交流가 進陟되지 않고 있는 것은 北傀의 이러한 諒解事項 侵犯으로 因한 것이라고 하겠으나 어차피 內外的 要因에 依하여 南北間 相互對話 및 交流는 必要한 만큼 다시 再開될 것으로 豫想할 수 있으며 또한 再開를 爲한 努力도 繼續되어져야만 할 것이다.

또한 여기서 考慮해야 할 것은 南北相互交流의 再開를 爲한 方法, 例를 들어 南北韓이 相互 受諾할 수 있는 方途의 講究가 必要할 것이다.

#### 나. 外部的 要因에 依한 考察

強大國 勢力 構圖上의 韓半島의 位置가 南北韓關係에 미칠 影響을 4大國의 立場에서 살펴 볼 때 現段階의 韓半島 問題의 比重은 一但 有事時 計劃적으로 即刻的인 武力 介入을 不辭할 程度

의 死活的인 利害나 戰略的 重要性을 띠고 있는 것은 아님에도  
不拘하고 韓半島問題는 他亞細亞地域 紛争과는 달리 明確한 軍事的  
境界線을 사이에 두고 冷戰時代의 「이데올로지」 對立과 軍事的  
對決狀態가 繼續되고 있고, 兩側에는 이미 外部에서 左右할 수 없  
는 固定화된 勢力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地域보다도 解消될  
수 없는 深刻한 敵氣心과 좀처럼 接近할 수 없는 相異한 價值觀  
이 뿌리박고 있는 가운데 背後 支援 強大勢力들의 利害와 介入에  
따라 韓·美·日의 南方 3角關係와 北傀·中·蘇의 北方 3角關係  
로 對峙, 不安한 勢力均衡을 이루고 있으며 따라서 一方의 利害에  
決定的인 打撃을 줄 만한 現狀變更의 事態가 發生할 때에는 背後  
支援 強大勢力은 本意가 아니면서도 直接 介入하지 않을 수 없는  
特殊性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4大國은 共히 自由을 말려들게 할 만한 韓半島에서의  
戰爭要因을 除去할 수 있는 解決方案을 摸索, 그 共通值로서 韓半  
島問題의 「現狀固定化」가 追求되고 있으며 各者는 이 테두리 안  
에서 제 나름대로의 戰略構想를 세우고 있다. 即 美國은 韓半島情  
勢의 安定基調 確立에 汲汲하여 分斷固定化를 希求하고, 日本은 現  
段階에서는 對韓半島作用力에 他方大國에 比해 劣勢에 있을 뿐 아  
니라 統一 韓半島가 競爭威脅勢力으로 抬頭될 可能性이 있다는 觀  
點에서, 또 中共은 宗主國으로서의 能力이 名實 共히 갖추어질 때  
까지는 暫定的으로 現狀을 默認할 수밖에 없다는 認識과 當面的으  
로는 韓半島의 現狀變更 努力이 日本의 再武裝 및 日本의 韓半島

上陸을 招來할 可能性이 있을 뿐 아니라 蘇聯의 對北傀 影響力을 增大시킬 수 있다는 觀點에서, 그리고 蘇聯은 韓半島의 現狀變更 努力이 本意 아닌 美國과의 核對決 危機를 招來할 可能性이 있을 뿐 아니라 日本의 再武裝을 招來할 可能性이 있으므로 韓半島의 分斷狀態를 그대로 둔 재 亞細亞問題 介入에의 拠点 및 中共 封鎖等에 利用하는 것이 得策이라는 觀點에서 4 大國은 各己 現狀固定化를 追求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韓半島問題 自體의 窮極的 將來에 關해 깊이 關心을 가진 國家는 없으며 韓民族이 기어코 統一을 願하고 이것이 民族內部的 問題로 取扱됨과 同時에 平和的 手段에 依한 것이라면 굳이 이를 阻止하려고도 않을 것인 바 要컨대 4 大國의 勢力均衡下에서의 統韓問題는 冷戰時代와 달리 完全한 韓國內部 問題로 轉換될 수 있는 素地가 마련되는 것이다. 그러나 勿論 現實적으로 強大國 利害關係 속에서 그리고 南北間 對話를 통한 自體的 統一은 難堪한 것임에서 韓國內部 問題化할 수 있는 素地 위에서 研究되어야 할 課題임은 明白한 것이다.

다. 豫想되는 南北韓關係

美國이 構想하고 있는 4 角體制의 均衡圖는 基本的으로 大國中 心主義로서 大國끼리의 現狀維持에 依한 平和共存을 追求하고 그 代價로서 相互間에 勢力範圍에 干涉하지 않으며 干涉시키지 않기 爲해서는 힘을 保持한다는 思考인 바 이 때문에 強大國은 어느

境遇도 그 勢力圈 政策에서 完全히 脱却할 수 없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中小国에는 참다운 行動의 自由는 保障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에 對한 中小国의 対応態度 如何에 따라서는 強大국에 依해 一方的으로 處理될 수도 있을 것이다.

南方三角關係의 構成員인 美國과 日本은 「이대올로지」 問題에 消極的인 데 비해 北方3角關係의 構成員인 中共과 蘇聯은 積極的이기 때문에 北方三角關係의 密接도가 南方三角關係에 비해 強하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美國과 日本의 韓國代弁役割은 中共, 蘇聯의 北傀代弁役割보다 弱할 것으로 憂慮된다. 더우기 北傀는 北方三角外交에 있어서 中蘇對立이라는 有利한 利用點이 있기 때문에 選擇的인 外交로 利益追求가 쉬운 데 反해 韓國은 北方3角外交에서 美國의 支配的 影響力 때문에 選擇의 幅이 적어 利益追求 努力에 限界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勿論 이러한 南北方の 3角關係는 各 強大國의 國內 與件에도 必然的으로 運動되어 나타날 것인 바 이를테면 美國의 政策이 孤立主義的 色彩가 強化되어 支配的으로 되는 때가 온다면, 그리고 日本에 民族主義勢力이 澎湃하게 되어 美國과 日本의 關係가 圓滿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면 南北韓의 關係가 美·日·中·蘇의 對立關係에 依하여 独自の 進路를 取할 수 있는 可能性도 커질 수가 있을 것이고, 中共內에 穩健派의 得勢에 依한 美·日·中共의 連繫關係가 成立된다는 것을 假定한다면 南北韓의 圓滿한 關係 進展이 어려울 것이며 情勢變動에 따른 南北方三角關係는 그 組合數

만큼 南北韓關係에 變化를 招來해 줄 것이지만, 여기서 가장 바람직한 形態는 4強이 各已 獨自的으로 勢力均衡을 形成하는 境遇일 것이다.

北傀는, 調整者 役割을 노리는 美國과 韓半島에 의 影響力 增大를 노리는 日本이 韓國의 意思와는 相關없이 對北傀 接近을 計劃대로 推進하는 데 따라 中共, 蘇聯과 함께 美國, 日本과도 對話의 通路를 갖게 되는 反面 韓國은 北傀에 比해 相對的으로 不利한 立場에 處할 것으로 豫想되고 이러한 美國과 日本의 北傀에 對한 態度는 다른 友好諸國의 北傀에 對한 接近을 재촉하는 結果가 될 것이며 여기에 韓國이 反撥할 때는 도리어 友邦國과의 사이에 緊張을 招來하게 될 것이다.

既存 亞細亞 支配勢力인 美國의 後退와 美國과 中共의 接近에 따라 中共의 登勢가 顯著해 짐으로서 亞細亞 群小周邊諸國은 中共의 눈치를 보는 外交姿勢로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狀況에서 亞細亞周邊 群小國과의 關係에서 조차 北傀側에 有利하고 韓國은 政外되는 位置에 놓여 질 可能性도 큰 것이다.

中共과 蘇聯은 北傀가 對南單獨戰을 遂行하려 할 境遇에 이를 牽制하고 또 戰爭이 勃發하더라도 直接介入할 可能性은 적으나 이러한 展望에는 確實한 保障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中蘇對로 이 極限狀態로 發展하면 이를 牽制하기 爲해 北傀가 韓半島의 戰爭을 挑發할 可能性을 全然 排除할 수가 없다.

萬若 韓半島에서 戰爭이 勃發하여 韓國이 不利해졌을 때, 美國은

海, 空軍力을 動員한 警密行動을 取함으로써 現休戰線을 維持할 것으로 期待되나 이러한 展望은 그때그때 他強大國과의 關係에 따라 流動的일 것이며 더욱이 北傀의 技術的 侵略(例를 들어 奇襲에 依한 部分的 占領)에 美國이 어떻게 對処할 것인가 하는 問題에서는 전혀 豫測을 不許하는 것이다.

北傀는 最近 國際情勢의 變化에 對應하여 果敢한 平和攻勢를 取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北傀는 平和意慾이 強하다는 印象을 주고 있는 데 比해 韓國은 아직도 硬直性에 脫皮하지 못하고 있다는 印象을 払拭하지 못하고 있어 平和戰略上 守勢에 놓이고 있고 各國 特히 友邦諸國까지도 意識, 無意識間에 北傀의 平和攻勢를 額面 그대로 받아들이는 傾向이 濃厚한 바, 이러한 趨勢가 繼續될 때 北傀의 國際的 地位는 韓國과 對等해질 것이 豫想되고 있다.

韓半島의 現狀固定化로 內部問題化하게 될 때 南北間의 對立이 具體的으로, 그리고 重點的으로 浮刻될 것이며 이렇게 될 때 國內 體制問題가 關鍵이 될 것이며 特히 經濟問題가 最關鍵的 競爭點이 될 것이다.

4 大國의 現狀固定化 努力이 南北間의 平和共存으로 歸着시키려 하는 것이라면 當然히 南北間에는 減軍問題가 必然的으로 提起될 것이고 南北韓間 交流를 前提로 할 때에는 內的인 合法性 問題가 生길 것이며 이 境遇나 마찬가지로 UN軍의 撤収가 早晚間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假定할 때 生길 南北間의 交流나 不可侵問題를 다룰 卽, 이를 公式化하고 南北韓間 基本關係를 規定할 文書의

成立이 豫見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豫想에 따라 美国과 日本이 北傀를 承認하고 蘇聯과 中共의 韓國承認을 머지 않아 「바터」할 수 있을 것이며 4強에 依해 對等한 立場에 北傀가 서게 될 境遇, 南北韓 UN 同時加入이 實現될 展望이 서게 되며, 拒否해 오고 있는 北傀의 南北對話도 새로운 次元에서 檢討될 것이 豫想된다.

## 5 . 結 論

四角体制가 韓半島에서 追求하는 「現狀固定化」 乃至 「分斷의 永続化」와 南北韓間에 深化된 價值觀의 相異로 統一은 거의 不可能하다는 것이 現實임에도 不拘하고, 統一은 民族的 至上念願인 同時에 課業으로서 今後 韓國의 國家戰略의 至上課業은 「現實」과 「民族的 念願」을 調和시켜 나가는 데 있을 것이며, 大國主義에 抵抗하고 北傀의 知能的 平和戰略에 對抗하여 韓國本然의 國益을 守護하기 爲해서는 國內的으로 諸矛盾을 果敢히 除去해 나가면서 力量을 備蓄해 가는 것이 基本的 關鍵이 될 것이며 其外 臨機應變的인 妙案은 없을 것이다.

國際社會에서는 永遠한 敵도 友邦도 없다는 事實을 認識하고 名分이나 「이데올로기」 그리고 既存外交 「패턴」에 拘碍되지 않고 外交路線을 果敢히 刷新하면서 그 속에서 國際環境과 既存政策과의 調和를 摸索해야 할 것이고 統一問題가 南北 當事者에 맡겨진 狀態下에서 平和的으로 統一에 接近해 가기 爲해서는 分斷의 現實, 卽 韓半島內에 또 하나의 「實體」가 存在하고 있다는 事實을 認定한 土臺 위에 앞으로 豫想되는 南北交流의 章에 對備해야 할 것이다.



## < 附 錄 >

가. 「맨스필드」 美国 上院院内總務의 韓半島 中立化 構想內容

「맨스필드」議員은 14年前인 1960.10.22 그의 極東旅行後에 提出한 「極東報告書」 第1章 末尾에서 『우리는 더욱이 韓國統一問題를 「오스트리아」式 中立化의 條件으로 解決하는 可能性을 가장 慎重히 考慮할 것을 美政府에 勸告한바 있다』고 論述했다.

1960.11.6 東亞日報社가 UDI를 通하여 上記 極東報告書의 建設內容에 對한 論評을 「맨스필드」議員에게 要請하였는데 同議員은 韓國問題解決을 爲하여 美国이 強大國과의 協議를 通하여 1955年 「오스트리아」를 中立化하였던 바와 같은 土台위에서 韓國의 中立化 統一을 摸索해야 하고 萬一 그것이 不可能하다면 韓國全體에 그 自体의 運命을 決定하는 自決權을 保障해서 어떤 統一方法이 마련되어야 하며 中立이 實現된다면 그 中立이 保障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 爲해서는 韓國(南北)의 國防力이 強化되어야 한다고 言及한바 있다.

한편 同議員은 74.7 日本時事通信 發行 英文 季刊 外交誌 Pacific Community (7月号)의 「亞細亞·太平洋의 變化와 美国의 外交政策」이라는 論文에서 東南亞 中立化 및 韓半島 中立化 問題에 對하여 다음과 같이 論述한 바 있다.

『이러한 特定한 問題와 亞細亞 및 西太平洋에 있어서 美軍의 縮少에 따라 일어나는 安全保障上의 諸問題를 處理하기 爲해서는

새로운 交渉의 形式이 必要하다.

本人이 생각하기로는 美·日·中·蘇가 西太平洋地域의 支持를 얻어 西太平洋의 四個国「구름」을 形成하고 不可侵條約 相互合意에 基礎한 軍事的 撤収, 亞細亞水域에서의 海軍力の 制限 및 亞細亞에서의 核実験과 核貯藏이라는 여러가지 構想에 對해 檢討하는 것이 適當하다고 본다.

이것은 또한 中立化된 東南亞 或은 中立化된 韓半島와 같은 提案에 對해 共同으로 反應하는 것을 容易하게 할수 도 있다.

本人의 判斷으로서는 美·日·中·蘇가 이 地域에 있어서의 安定 平和와 住民의 福祉實現을 目標로 相互協力하며 다른 諸國家들과 힘을 合한다면 이러한 形態의 進展도 可能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나. 第 29 次 UN 總會 基調演說에서 木村 日本外相의 對韓關係 發言 및 記者會見 內容

韓半島에서는 昨年の 決議에서 表明된 平和統一에 對한 韓民族의 念願을 確認함과 同時에 南北韓도 對話와 交流를 통한 緊張緩和에의 共通的 念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事實에 立脚해서 問題를 지켜보아야만 한다.

韓國問題에 對한 基本的인 생각은 UN軍에 代身해야 하는 어떠한 措置가 取해지지 않는 限 韓半島의 安全維持를 爲해 現在의 UN軍은 必要하다고 하는 것이다.

韓半島에 있어서 唯一合法政府의 問題는 日韓條約 第3條로서 韓國政府가 有効하게 支配하며 管理하고 있는것은 UN決議 195号 (UN의 臨時委員會가 監察할 수 있는 部分에 對해 有効支配) 의 部分인 것을 말한 것이다.

다. 第29次 UN總會 基調演說에서 喬冠華 中共 代表團長의 對韓 關係 發言內容

昨年 UN總會에서는 朝鮮問題에 對한 一致한 見解가 採択되어 朝鮮의 自主, 平和統一 民族大團結의 3原則이 確認됨과 同時에 UNCUK의 解散이 決定되었다. 이것은 歡迎해야만 하는 進展이다. 1年來의 事實은, UN은 既得의 進展에 滿足해야만 하는것이 아니고 繼續 前進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南北의 對話를 推進하고 朝鮮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促進하기 위해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은 많은 努力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努力은 南朝鮮 當局의 理致에 맞지않는 拒 否를 당했다.

南朝鮮當局은 枝葉的이고 部分的인 問題들에 關한 여러가지 提案 을 行했지만 그 目的은 全혀 그들이 南北統一이라고 하는 根本問題에 對한 協議를 바라고 있지않다는 것을 은폐하려는데 있는 것이다. 그들이 정말로 바라고 있는 것은 分裂이며 統一은 아니다. 南朝鮮當局은 北部로 부터의 威脅을 國災로 一連의 緊急措置를 取

했으며 南朝鮮人民의 基本的이고 民主的 權利를 一切 剝奪하고 民主 및 自由를 要求하고 平和統一을 主張하는 各階層의 人民을 大量으로 逮捕, 調査 監禁 학殺하고 있다. 青年學生, 大學教授로부터 政界人士 드디어는 前大統領尹潽善, 天主教主教 池學淳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이 災厄을 避할수 는 없었다.

南朝鮮當局에 依한 金大中拉致事件을 아직 解決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그의 現在 行動은 以前에 비해 더욱 制限을 받고 있다. 今日의 南朝鮮은 事實上 「팻쇼」의 個人獨裁의 「테로」支配 아래 놓여 있다. 南朝鮮當局이 일부러 이와같이 人民에 對한 彈壓을 強化하고 南北對話를 破壞하고 있는 것은 主로 美國軍을 背景으로 依存하고 있기 때문이다.

朝鮮에 對한 外部로부터의 干涉을 排除하고 朝鮮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促進하기 爲해 南朝鮮에 駐屯하고 있는 外國軍隊를 撤退 시킨다는 것은 完全히 必要한 것이다.

美國等 數個國이 提出한 朝鮮問題에 關한 覺書와 決議案은 UN 旗下의 美軍은 駐在國의 內政에 干涉하고 있지 않다고 記述하고 있다. 이것은 常識에 對한 風刺에 지나지 않는데 數萬에 達하는 美軍의 存在가 南朝鮮支配者들에게 勇氣주는 役割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인가.

昨年 UN 總會의 決議는 南北朝鮮의 統一이 外部勢力의 干涉이 없는 條件下에서 平和的方式에 依해 實現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確認하고 있다.

이 原則을 確認하는 限 必然的인 論理로서 UN 旗下의 外國軍隊  
는 南朝鮮으로 부터 撤退해야 한다.

『朝鮮의 緊迫한 情勢는 完全하게 除去되지 않았다』는 句節은  
確實히 말한다면 北部로 부터의 威脅이 存在하고 있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特히 破綻하고난 後의 옛날이야기이다. 이제는 南朝鮮을  
一貫하여 支持하여온 隣接諸國들 마저 더 以上 南朝鮮을 믿지 않게  
되었다.

이와같은 『威脅』이 存在하는 以上, 『UN軍』은 撤退할 수 없  
다는 等의 말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에 不過하  
다.

中共代表團은 美國等 數個國이 提案한 朝鮮問題에 關한 決議案을  
斷呼하게 反對하며 「알제리아」提議한 UN의 名義로 南朝鮮에 駐  
屯하고 있는 모든 外國軍隊를 撤退시키자고 하는 提案을 이번  
UN 總會에서 討議하고 採択해야 한다는 것을 斷呼히 主張한다.

라. 第 29 次 UN 總會 基調演說에서 「그로미코」 蘇聯 外相의 對  
韓關係 演說 內容

今般 會議 議題에는 亞細亞情勢의 健全化에 直接的인 關係를  
가진 問題가 있는데, 이것은 蘇聯을 包含한 32 國家가 提起한 「유  
엔」 發발에 南朝鮮에 駐屯하고 있는 모든 外國軍隊들을 撤去할

것에 對한 問題이다.

20年 以上 繼續되고 있는 이 軍隊의 南朝鮮 駐屯은 朝鮮半島에 서 一常的인 軍事 政治的 緊張의 源泉으로 되고 있다.

美軍 駐屯은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의 發起에 依하여 朝鮮의 平和的 統一을 為한 努力이 取해지고 있는 現條件下에 더욱 繼續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마. 木村 日本外相의 對韓關係 發言錄

※ 每日新聞(8.10)

- 亞細亞에서의 緊張要因은 韓半島인 바 周辺國인 日·美·中·蘇가 共同으로 調整할 생각은 없는가?
- △ 南北韓의 對立은 冷戰構造의 產物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美·蘇가 共히 責任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韓·日間에는 좋지 못한 過去가 있다. 지금까지 對韓政策에서 고쳐야 할것이 있다면 고쳐야 한다.
- △ 韓半島에 關해서는 美·日·中·蘇가 共同責任을 하여야한다. 우선 自主的 平和統一의 실현을 美·日·中·蘇의 國際的責任下에 推進해나가는 것이 좋을것이다.
- 이를 為해 日本이 「이니시어티브」를 取하고 新大統領에게 協助하도록 提議할 생각은 없는가?
- △ 國際會議은 考慮할 수 있으나 美·蘇가 應할런지 疑問이다. 우선 分斷狀態를 固定化하자는 뜻에서가 아니라 UN에 南

北이 同時加入하여 兩國關係를 緩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美·日·中·蘇가 共同으로 責任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 読 売

- 日本의 對亞細亞政策 安全保障問題에 關한 意見은?
- △ 新美大統領은 1972.6. 中共을 訪問한 바 있으며 「닉슨」時代와 基本的인 變化는 없을 것이다.
- △ 韓·美關係도 變化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韓國內部の 急變하는 情勢에 어떻게 對處할 것인가하는 새로운 政策이 나오지 않겠는가 보인다. 大統領은 美議會와 密接히 關係되고 있기 때문에 對韓政策에 議회의 意見이 當然히 投影될 것으로 본다.

※ 世界週報(8.13)

- 本來 韓·日關係를 伸張하면서 北傀와의 關係도 넓혀가던 姿勢가 數年동안 沈滯되고 있다. 이러한 韓日關係를 어떻게 解決해 나갈 것인가?
- △ 이것은 내가 가장 마음아파하는 點이다. 우리들의 日常生活 體驗에서 가장 사이가 좋아야 할 이웃과의 交際가 第一 힘들고 어렵다는 結果가 되고 말았다. 韓日間에는 普通의 나라와는 달리 純粹한 外交關係와는 處理할 수 없는 點이 있다. 即 心情的 要素가 太端히 增幅되어 왔다는 것이 가장 取扱하기 困難한 點이다.

오직 韓國의 国内体制에 對해서 自由人으로서는 여러가지로 批判이 있겠으나 隣接한 國境에 아무런 敵도 가지지 않은 日本은 國境을 넘으면 이에 北에 敵이 있다고 하는 韓國과는 基本的으로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韓國立場도 充分히 理解하고 있지만 亦是 韓日關係는 周邊諸國과의 外交의 基本을 이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韓日間의 長期的인 友好關係를 維持한다는 것은 到底히 避할 수 없는 基本的 命題라고 생각한다. (世界週報 . 8.13 )

※ 参院決算委員會 星野力 共産黨議員( 8.19 )

- 政府의 對韓半島 外交가 1969年 美·日 共同聲明上의 「韓國條約」線에서 遂行되고 있는가?
- △ 「韓國條項」은 어디까지나 1969年 當時의 美·日 雙方의 認識을 表示한 것이며 그 後의 國際情勢, 特히 「亞細亞」에서의 緊張緩和나 韓半島에서의 南北 兩政府의 對話進展等을 생각한다면 確實히 韓國의 安定은 日本에 影響을 주나 오히려 韓半島의 平和와 安全이 日本의 安全을 爲해 極히 緊要하다고 認識하고 있다.
- 國際情勢에 큰 變化가 있고 韓國動亂 當時의 構造는 이미 破産하고 있기 때문에 北僞를 承認하는 方向으로 勇斷을 내려야 한다.
- △ 國際關係나 韓半島에 큰 變化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認定하나 韓國에는 아직도 UN軍이 駐屯하고 있고 日本은 韓



半島 南의 部分을 支配하고 있는 韓國을 合法的인 政府로  
서 承認하고 있다.

△ 北傀에 對해서는 國際情勢, 特히 韓半島의 情勢가 變化된  
時点에서 생각할 것이며 只 今은 時期尙早이다.

△ 南北韓의 平和的, 自主的으로 統一되어 그 政府와 國交를  
가지는 것이 將來 바람직하다.

○ 對韓 經濟援助를 中止해야 한다.

△ 日本의 對韓援助는 特定政府에 편드는 것이 아니고 國民生  
活의 安定에 寄與하기 爲한 것이기 때문에 金大中事件等에  
拘碍됨이 없이 援助를 繼續할 것이다.

※ 「에코노미스트」誌(8.20)

○ 從來 美·日首腦會談에서는 韓國의 安全과 日本의 安全을  
直結시킨 論議가 되풀이 되어 왔다. 이와 같은 美·日間  
의 思想과 韓國의 現狀과의 關聯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 그것에 對해서는 韓國의 安全에 對한 美·日間의 立場의  
問題, 特히 韓國의 平和와 獨立과 安全에 關한 美·日間의  
思考調整을 나는 좀더 높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 韓國에 있어서 政治의 姿勢는 韓半島의 安全에 큰 影響을  
준다. 그러므로 美·日 兩國이 韓國에 拘碍되거나 좁게  
局限시키지 말고 韓半島라는 스케일에서 軍事的 安全이나  
安全保障이라는 觀點以上の 廣義의 安全이라는 것을 論議해  
야 할 時期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 △ 나는 이번 UN 총회에出席할 때 美国의 「키신저」國務長官과 이 問題를 包含하여 論議하고 싶다.
- 그러면 当然히 考慮될 것은 韓半島에 있어서 南北對話의 問題일 것이다. 이것을 長期的으로는 南北平和統一을 爲해 美·日이 提携해서 二国間 또는 他国間的 國際舞臺에서 推進하고 싶다는 것인가?
- △ 韓半島의 가장 바람직한 解決이 南北의 平和的 自主的 統一이라는 것은 玆함이 없다. 이것은 南北을 통털어 韓民族의 願望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不幸하게도 現狀은 南과 北으로 나뉘져 있다.
- △ 1972年에 對話 「무우드」가 助成되어 南北韓이 調整을 試圖했다.
- △ 그 後 不幸히 調整作業은 停滯되고 있다. 여기에 北의 威脅을 理由로 한 朴大統領의 緊急措置라는 것이 나왔다.
- △ 韓國에 對해서 北의 威脅이 있는지 없는지는 韓國이 느끼는 것이므로 日本政府로서는 이에 對하여 言及을 참가해야 된다는 생각이다. 이것은 政府의 公式的 姿勢이다. 적어도 現在 韓國에 그러한 緊急體制가 施行되고 있다는 이 事實은 日本으로서도 注目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가운데 南北의 對話는 断絶되어 왔다.
- △ 나는 南北對話를 우선 한번 더 再開하도록 國際的 調整이랄까. 美·日 兩國 뿐만 아니라 美·日·中·蘇 四者間에

좀더 率直하게 論議할 수 있는 機會가 있을 것을 願한다.  
또한 中·蘇도 이에 反對할 理由가 없다고 생각한다. 南  
北韓의 平和統一이라는 것은 엄청난 過程이라고 생각되나  
거기에 到達하는 節次로서 可能하다면 南北韓이 同時에  
U.N에 加盟하여 南北統一의 節次로서 서로 U.N 안에서 對  
話를 繼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 지금 말한 美·日·中·蘇의 關聯 가운데 韓國問題를 處理  
해 가겠다는 생각에 對해서 이미 外交 「채널」을 통해  
豫備交涉이나 打診이 있었다고 解狀해도 좋은가? 그리하여  
그 舞台가 外相이 가는 今年 U.N 總會이며 어느 程度의  
結實까지도 期待해도 좋은가?

△ 나 自身 아직 그 期待가 結實되리라는 材料를 가지고 있  
지 못하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여러번 韓半島問題를 包含  
한 國際情勢 協議에서 이에 對한 言及이 없었던 것은 아  
니다.

△ 例컨데 日·蘇 또는 日·中共 首腦會談時 國際情  
況하여 協議했다는 것을 共同聲明 가운데 一句節로 表示하  
고 있다. 當然히 그 中에는 韓半島를 어떻게 한다는 論  
議가 있었던 것으로 確信한다. 적어도 나는 이번 U.N 總  
會에 가서 中·蘇의 外相과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機會  
가 있으면 韓半島問題는 一般國際情勢 가운데 重要한 하나  
의 要素로 삼고 싶다. 特히 中共과의 日·中平和友好條約

의 問題에 對하여 今後協議가 始作될 것이다. 이것은 日·中 二國間 問題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日·中 共間에 國交正常化가 되었으니 이것을 土臺로 하여 韓半島를 包含한 亞細亞 全體의 今後 平和를 어떻게 構築해 갈 것인가를 協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半分の 價值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 確實히 日本과 韓國 및 韓半島의 關係는 美·日 其他 首腦會談에서 言及되어 왔다. 그러나 現在 朴政權에 對한 國際輿論 또는 韓國內 反朴運動이 繼續되고 있는 境過는 日本의 廣義의 安全保障에도 여러가지 微砂한 影響을 미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그렇다. 나는 「이솝」의 寓活 가운데 「길가는 나그네의 外套 벗겼다」는 이야기에 비추어 今日本의 韓國問題를 잘 생각한다. 現在 韓國政權은 北에서의 威脅을 理由로 大端히 두터운 外套를 입고 있다. 「北風」을 理由로 두터운 外套를 입고 있는 以上 우리로서는 그 外套를 벗기기 爲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벗어라, 벗어라」해 보았자 더욱 조일 뿐이므로 어떻게 해야 좋을 것인가, 急하면 迂回하라는 말도 있지만 韓國이 말하는 北으로부터의 威脅, 그것이 除去되도록 하는 國際的 努力이 必要하다. UN도 그렇지만 보다 가깝게 있는 日·美·中·蘇 이들 國家는 過去 오늘날의 韓國을 만든 責任이 있다는 自覺을 가지게

해야 한다.

- △ 나는 이들 諸國에게 이 點을 強調할 作定이다. 나는 美中·蘇에게 責任感에 立脚하여 韓國의 外套를 벗기는데 힘을 기울이지 않겠느냐고 말하겠다. 日本은 이미 이와 같은 決議를 굳히고 있다.
- △ 南北統一은 險難한 現想일 것이다. 거기에 到達하는 「프로세스」로서 UN 同時加入도 있다. 또한 南北分裂의 固定化는 아니나·例컨데 共產主義圈이 南을, 우리는 北을 承認하자는 생각도 꿈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 △ 그와 같은 環境을 만듦으로써 南北이 모두 이에 對해 가장 큰 發言權을 가지는 것은 어떤 意味에서 日本이라는 自覺을 가지고 있다.
- 北傀의 日本에 對한 威脅이 廣義든 狹義든 存在한다고 생각하는가?
- △ 나는 北傀로부터의 威脅은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고 있다. 北傀도 日本에 對하여 아무런 侵略의 意圖도 없다.
- △ 또 北傀의 社會體制, 政治體制를 日本에 輸出하려 하더라도 日本은 그것을 받을 國家가 아니다. 日本은 高度로 民主化된 國家이므로 萬一 그러한 것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조금도 놀라지 않는다. 이러한 意味에서 나는 아무런 威脅도 없다고 생각한다.
- △ 다만 南北間의 對立이라는 것이 日本에 對해서 어떤 意味

에서 매우 나쁜 影響을 주고 있다. 이것은 否定할 수 없다.

△ 그러므로 南北對立을 除去하는 데 우리의 努力을 傾注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北傀의 威脅을 除去한다는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다.

○ 그러나 美國의 軍部는 어떠한가?

△ 軍部는 어느 國家도 共通點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日本의 自衛隊는 北傀의 威脅을 느끼지 않고 있다.

※ 參院外務委(8.29)

○ 田英夫(社) : 韓國은 끊임없이 北傀의 威脅이 있다고 하는데 日本政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北으로부터의 威脅이 있는가의 與否는 韓國이 判斷할 問題이나 日本政府로서는 客觀적으로 그런 事實은 없다고 判斷한다.

※ 外信「클럽」記者會見(8.30)

○ AP記者 : 韓國에 北傀의 威脅이 없다고 한 것은 具體적인 情報에 依한 것인가. 單純한 外相의 느낌인가?

△ 1972年 南北共同聲明發表 以來 南北間에는 對話가 推進되고 있으며 또한 UN軍이 駐屯하고 있어 南北間의 勢力均衡과 平和安定이 維持되고 있다. 또한 韓美防衛協定으로 韓半島內에서의 여러 環境은 매우 改善되었다.

△ 美·蘇, 美·中, 日·中關係改善에 따라 韓半島를 圍繞한 國

際情勢에 있어서도 情勢는 緩和되었다.

△ 韓國의 國內事情을 보더라도 經濟成長과 社會安定이 이룩되었다. 나의 어제의 答辯은 이러한 氣分에서 말한 것이다.

※ 衆院外務委(9.5)

○ (松永條約局長의 發言을 肯定)

△ 韓國 및 韓國政府가 韓半島에 있어서의 唯一한 合法政府라는 認識에서 있지는 않다.

※ 美·日首腦會談後의 記者會見(9.21)

○ 韓國에 對한 「北으로부터의 威脅에 對해서 基本的인 생각은?

△ 南北韓間에 如前히 緊張이 감돌고 있다고 韓國自身이 判斷하고 있다. 매우 一般的인 말로써의 威脅이 있는가. 어떤지? 이것은 第1義的으로는 韓國自身이 判斷해야 할 問題이다. 그러나 數十年前의 韓國戰과 같은 事態가 가까운 時日內에 生길것인가 한다면 當時와는 매우 事情이 다르다고 하는것이 UN을 包含한 一般的인 國際的 認識이다.

UN軍과 韓·美相互防衛條約의 存在, 中·蘇가 盟邦이 아니라는 것, 美·中共間의 緊張緩和, 再昨年 七月 南北共同聲明에서 平和統一이 民族의 念願으로서 呼訴되었으며 南北間의 對話가 트이는 등, 極히 커다란 情勢의 變化가 있었다.

UN決議에도 나타나 있는 것처럼 北으로부터의 大規模的인 軍事侵略이 일어날 것 같이 생각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

이 國際的 認識이다.

※「뉴우스·워크」 ( 9.30 )

○ 韓國問題에 對한 貴下의 最近發言은 平壤과의 外交關係 樹立을 願하는 日本의 意思를 反映한 것인가?

△ 韓半島에 對한 日本의 基本政策은 아무런 變化가 없다. 우리는 南北韓 等距離 外交政策을 採択할 생각도 없다. 貴下가 指摘한 나의 發言은 韓國新聞들의 誤報에서 緣由된 것이다. 駐日韓國大使는 한 韓國特派員이 저지른 誤報에 對해 本人에게 謝過한 바 있다.

○ 지난번 發言을 事實 그대로 다시 한번 얘기해 달라.

△ 議會에 나가 1965年 韓·日兩國의 正常化로 締結된 韓·日基本條約의 第3條에 對한 質問에 答할 때였다.

第3條는 UN總會決議 165 號에 明示된 것처럼 大韓民國을 韓國의 唯一·合法政府로 宣言하고 있다. 問題의 UN決議는 大韓民國이 合法的으로 樹立되었다는 것. UN韓國臨視委員團의 監視, 協議가 可能한 地域에 對해 實質的인 支配, 管割權을 갖는다는 것. 그리고 이 地域에 韓國民의 多數가 居住한다는 것等を 規定하고 있다. 이 決議는 또 大韓民國이 唯一한 政府라고 밝혔다. 나는 日本政府의 立場에서 基本條約 第3條에 明示된 것을 確認했을 뿐이다.

그 以上の 아무것도 附言한 바 없다.

○ 平壤으로부터 軍事的 威脅이 없다는 貴下의 發言에 韓國國



민들은 크게 憤怒했는데?

△ 平壤으로부터의 威脅이 있는지 없는지는 大韓民國이 判斷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우리側에서도 亦示 狀況을 客觀적으로 把握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가 把握한 그 狀況은 1950年 韓國戰 突發時의 狀況과는 다른 것이다.

첫째, 約4萬名에 가까운 UN軍이 韓國에 駐屯해 있다.

둘째, 韓國과 美國間에는 相互防衛條約을 締結하고 있으며

셋째, 大韓民國의 軍事力이 顯著히 增加되었다.

넷째, 韓國戰 當時의 中共과 蘇聯은 緊密한 同盟國이었다.

그 狀況은 오늘의 狀況과는 다른 것이다.

다섯째로 美·中共間에 緊張이 緩和되었다.

여섯째로 1972年부터 韓國과 北韓은 對話를 始作했다.

이같은 諸般事態의 發展에 비추어 本人은 北으로부터의 大規模 軍事侵略이 있을 것으로 생각치 않는다.

本人은 또한 이러한 本人의 判斷이 國際社會에서 널리 受諾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 最近 中共·蒙古와 外交關係를 맺은바 있는 日本이 어째서 北韓에 對해서는 大使開設을 願하지 않는가?

△ 日本이 取하는 어떤 措置도 反射적으로 韓半島의 既存均衡을 損傷시킬 可能性이 있다. 蘇聯과 中共이 大韓民國을 承認하고 또 美國이 北韓을 承認한다면 그다음 日本이 北韓을 承認하는 時期가

무르익게 될지도 모른다. 그 時期가 到來할 때까지 本人은 日本이 「이니시아티브」를 取하는 것은 賢明치 못한 措置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서서히 文化的인 交流를 增大해 가고 싶다.

- 「포드」大統領이 今年 가을 日本을 訪問할 때 韓國問題가 主要議題의 하나가 될 것인가?
- △ 韓半島狀況에 關해 討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